

화학제품 수출가격 4.1% 큰폭 하락

한국은행, 5월 수입가격은 1.4% 하락 그쳐 ... 수출입물가 첫 하락

원·달러 환율의 하락으로 수출입물가가 2002년 들어 처음으로 전월에 비해 떨어졌다.

한국은행이 발표한 5월 수출입물가 동향에 따르면, 원화 기준 5월 수출물가는 4월에 비해 3.4%, 수입물가는 4월에 비해 2.6% 각각 하락했다.

수출물가는 2001년 10월부터, 수입물가는 2001년 4월부터 각각 하락세를 보이다 2002년 1월부터 상승세로 돌아섰으나 5월에는 동반 하락했다.

수출물가는 농림수산물에 전월에 비해 3.4% 하락한 것을 비롯해 섬유·가죽제품(3.3%), 석유화학·고무제품(4.1%), 운송장비제품(3.0%) 등이 일제히 떨어졌다.

공산품은 원화환율이 주요 통화에 대해 큰 폭으로 하락한 가운데 주요 수출지역에서의 국내외 경쟁심화 등으로 3.5% 하락했다.

섬유, 의복 및 가죽제품은 원화환율 하락과 미국 등 주요 수출지역에서의 수요부진 및 경쟁심화 등으로 블라우스, 나이론직물, 가공우피 등 대부분이 내려 3.3% 떨어졌다.

석유화학 및 고무제품은 벙커C유, 부타디엔, PTA 등이 국제유가 상승과 정기보수 등으로 올랐으나 에틸렌, ABS, 나프타 등이 원화환율 하락과 구매수요 부진 및 과당경쟁 등으로 비교적 큰 폭으로 내려 4.1% 하락했다.

금속1차제품은 냉연대강, 스텐레스강관 등이 원자재가격 상승 및 수요증가로 올랐으나 열연대강, 알루미늄박, 페인트도포강관, 후판 등이 원화환율 하락으로 내려 1.5% 하락했다.

공산품 수출물가 등락현황

(단위: %)

구 분	등락률	주요 등락 품목
섬유/의복 및 가죽제품	-3.3	블라우스(-9.8), 가죽코트(-7.4), 나이론직물(-6.8), 가공우피(-4.0), 도포직물(-3.9), 가죽갑피운동화(-4.0), 화섬자켓(10.2),
석유화학 및 고무제품	-4.1	에틸렌(-24.2), ABS(-14.6), 나프타(-7.9), PE(-7.7), PP(-7.1), 자일렌(-7.7), 부타디엔(10.1), PTA(7.1), 벙커C유(1.5)
금속1차제품	-1.5	열연대강(-4.0), 알루미늄박(-4.0), 페인트도포강관(-4.0), 후판(-2.6), 금괴(-2.4), 냉연대강(6.3), 스텐레스강관(2.9)
전기/기계/장치	-4.4	케이블(-6.2), 변압기(-4.0), 전기회로개폐기(-4.0),
영상/음향 및 통신장비	-4.4	D램(-25.0), S램(-4.4), TV브라운관(-5.3), TV(-4.1), 축전기(-5.2), 인쇄회로기판(-5.1), 카세트라디오(-4.4), VTR(-2.5), 전화기(-3.3)
운송장비	-3.0	자동차부품(-4.0), 화물차(-4.0), 중형승용차(-3.0), 소형승용차(-2.5)

+ 전월대비

수입물가는 종이원료(3.8%) 등 일부 상승 품목을 제외하고 섬유소재(4.5%), 비철금속소재(4.0%) 등 대부분 원자재가 하락세를 보였으며 자본재와 소비재도 각각 2.1%와 3.6% 떨어졌다.

연료광물은 액화천연가스가 국제유가의 상승 및 미국·캐나다 등의 생산량 감소 영향으로 올랐으나 국내 수입유가가 원화환율 하락으로 내려 2.8% 떨어졌다.

중간원자재는 나무제품(0.8%)이 공급감소로 올랐으나 섬유제품(-4.5%), 석유제품(-3.3%), 기계부품(-3.3%) 등이 원화환율 하락과 경쟁심화 등으로 내려 2.6% 하락했다.

섬유제품은 원화환율 하락과 계절적 비수기에 따른 중국·유럽 등지의 수요감소 및 재고증가 등으로 화섬 직물, 면직물, 모직물 등 직물제품이 내려 4.5% 하락했고, 나무제품은 합판이 인도네시아의 원목 벌채량 제한에 따른 공급감소로 올라 0.8% 상승했다.

석유제품은 프로판가스, 부탄가스 등 가스류는 유가상승에 따른 대체수요 증가로 올랐으나 휘발유, 경유, 나프타 등 석유류가 원화환율 하락과 유가안정을 예상한 중국, 한국 등 주요 수요국의 구매연기 등으로 내려 3.3% 하락했다.

화학제품은 EDC, EG 등이 원재료 가격상승과 중국·미국 등의 구매수요 증가로 올랐으나 벤젠, SM, 합성고무, 비료 등이 원화환율 하락, 정기보수 완료에 따른 공급증가, 미국·일본 등지의 경쟁심화 등으로 내려 1.4% 떨어졌다.

중간원자재 수입물가 등락률

(단위: %)

구 분	등락률	주요 등락품목
섬유제품	-4.5	면직물(-6.7), 모직물(-6.0), 화섬직물(-5.0), Polyester사(-4.0), 견직물(-4.0)
나무제품	0.8	합판(4.7)
석유제품	-3.3	나프타(-7.9), 휘발유(-4.0), 경유(-3.7), 윤활유(-2.7), 부탄(9.0), 프로판(2.7)
화학제품	-1.4	벤젠(-11.3), SM(-7.7), 합성고무(-9.0), 비료(-5.3), EDC(32.4), EG(12.8)
금속1차제품	-2.6	알루미늄합금(-6.1), 알루미늄판(-5.2), 강관(-5.8), 후판(-4.1), 형강(-4.1), 빌렛(4.6), 동판(0.2)
기계부품	-3.3	컴퓨터부품(-10.5), 축전지(-8.8), TV브라운관(-4.0), 공기압축기(-4.1)

+ 전월대비

한국은행은 수출입물가 하락이 원화 환율의 지속적인 하락세에 따른 것으로 수출물가 하락은 수출기업에 어려움을 주겠지만 수입물가 하락은 원가절감으로 인한 소비자물가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.

< Chemical Daily News 2002/ 06/ 17 >